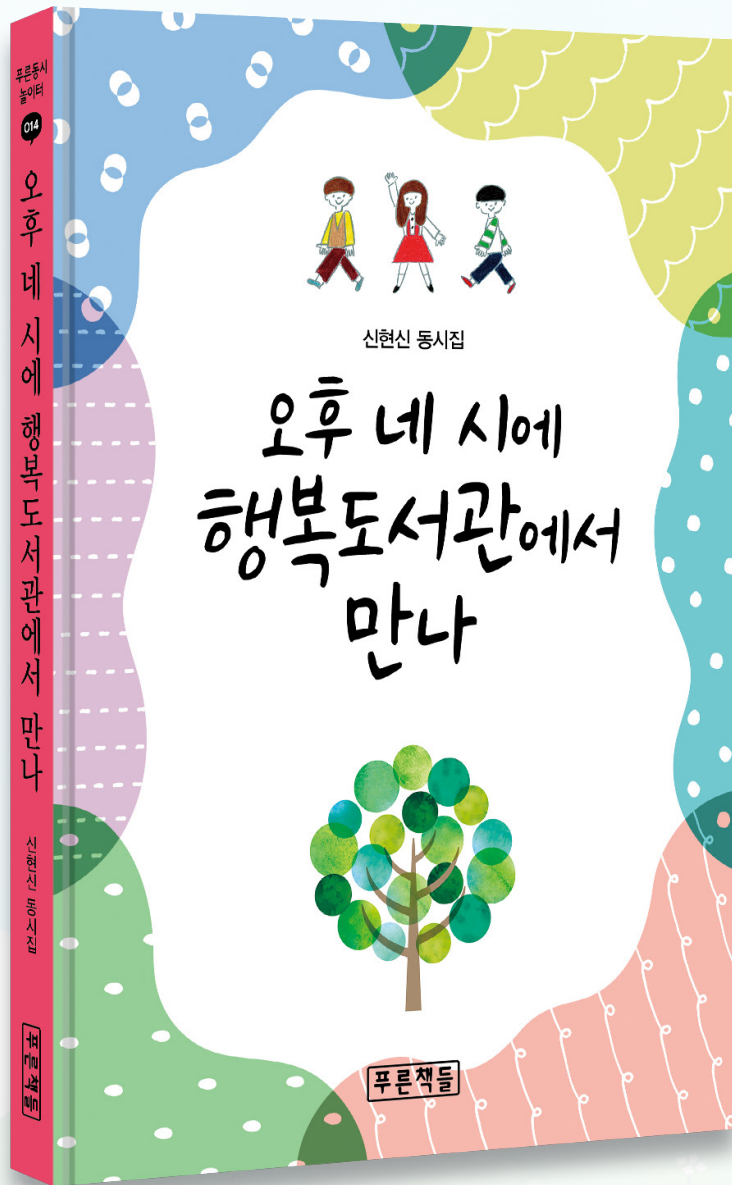


|초등 전학년|

푸른 동시 놀이터 014

오후 네 시에 행복도서관에서 만나

신현신 지음 | 푸른책들 펴냄



홀로 길을 걷는 것은 혼자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만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오후 네 시에 행복도서관에서 만나』는 이러한 순간들을 섬세히 포착하여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감각을 생생하게 되살려 준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투성이일 어린이뿐만 아니라 삶이 익숙하고 무감각해졌을 어른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동시집이다.

읽기 전 활동

1. 시와 동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 뒤표지에 적힌 시인의 말을 읽고, 여러분이 산책하면서 만난 것들을 이야기해 보아요.

읽기 중 활동

1. 10쪽의 동시 「우산」에서 사용된 비유법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2. 13쪽의 동시 「은행나무 아래서」의 ‘노란 물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 61쪽의 동시 「벌써!」를 읽고, 화자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해 보아요.

젖은 운동화

하루 종일
비 와서
나가 놀지도 못했지?
아이구, 심심했겠네

최근해 돌아온 엄마가
지친 얼굴로 묻는다
엄마는 일하면서도
내 생각만 하는 걸까?

엄마가 벗어 놓은 신발 보니
다 젖어 있다
마른 수건을 뚝뚝 말아
엄마 운동화에 옮겨 넣었다

그 순간,
젖은 운동화가
내게 소곤소곤-

엄마도 네 신발 젖었을 때
이렇게 해 주었지?
그때 아주 기분 좋았지?

읽은 후 활동

1. 14쪽 동시 「나는」을 읽고, 학교나 학원 외에 혼자서 가 본 장소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2. 18쪽 동시 「내 친구」를 읽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같아.’의 직유법으로 표현해 보아요.
3. 38쪽의 동시 「짧고 긴」을 읽고, 짧은 단어이지만 마음에 길게 남는 단어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아요.
4. 50쪽의 동시 「9월 9일은 귀의 날」을 읽고, 나만의 기념일을 만들어 보아요.
5. 70쪽의 「오징어」를 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 사물을 사진으로 찍어 보아요.
6. 75쪽의 동시 「좋아」를 읽고, 시의 형식을 빌려 계절에 관한 시를 써 보아요.

철쭉 동산

우리 동네 철쭉 동산에 가면
철쭉이 사람보다 더 많다

예쁘게 웃고 있는 철쭉
있 하나 똑 떨어진 철쭉
시무룩한 철쭉
두리번거리고 있는 철쭉
먼 곳만 바라보고 있는 철쭉

다 다른 표징이지만
봄야람 봄면
춤추는 것만큼은 똑같다
한 몸짓으로 사랑사랑
한 몸짓으로 한들한들

벌써!

형이랑 축구하러 가는데
사다리차를 타고
위층에서 이삿짐이 주욱
내려온다

형, வீ집 이사거나 봐,
저 집 알아?
물라!

학교에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배웠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웃이
몇 호에 살았는지도 모르는 이웃이
벌써,
이사를 간다, 벌써!